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 대응”, “협력 사업 생태계 확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총수들 신년 메시지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새로운 50년 혁신 통한 새 가치창출 시간 돼야”

조현준 효성 회장 “생존·성공 위해 속도·효율성 기반 민첩조직 돼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총수들이 새해 신년 메시지를 통해 ‘도전 정신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격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프런티어’ (개척자)가 되자고 밝혔다.

그는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 복판에서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

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는 사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지나온 50년이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을 시작하는 지금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난 조선 부문에 대해 “일감 부족의 고비를 넘어 이제는 수주된 물량을 납기 내에 인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다시 한번 꼼꼼하고 세밀하게 대응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변혁의 시기에 회사가 생존하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와 효율성에 기반한 민첩한(Agile)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회사의 체질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부서간 기민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고, 유연하고, 효

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자”며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룹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박 회장은 “이제 한층 단단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전열을 갖춰야 한다.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주요 실행 목표로 ▲ 신사업군의 본격적 성장 ▲ 수소 비즈니스 선도 ▲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 ▲ 기존 사업의 경쟁우

위 통한 시장 선도 등을 제시했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고객경험’과 ‘업무방식 혁신’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 영상에서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며 이를 위한 업무방식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금까지 LG는 양질의 제품을 잘 만드는 일에 노력해 왔지만, 요즘 고객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한다”며 “고객은 제품·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가치 있는 순간들 때문에 감동한다”고 설명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CES 2022서 ‘그린 ICT’ 선보인다

2030년 탄소감축 목표량 210억톤 ‘넷-제로 약속선언’ 주제 부스 꾸러

SK텔레콤이 5일(현지시각)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넷-제로(Net-zero) 시대의 그린 ICT(정보통신기술)를 선보인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투명성으로 대표되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K그룹은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에 해당하는 2억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SKT는 탄소 감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SKT는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E&S, SK에코플랜트 등과 함께 ‘2030 SK 넷-제로 약속선언’을 주제로 센트럴 홀에 920㎡ 규모의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려 SKT의 그린 ICT 기술을 소개한다.



‘CES 2022’ SK 그룹 전시 부스 조감도. /SKT

SKT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사피온(SAPEON)’을 선보인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에 해당한다.

SKT는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

하는 ‘싱글랜’ 기술도 소개한다.

SKT는 ‘싱글랜’ 기술을 통해 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SKT는 2020년 서울시 포함 전국 78개시에 위치한 기지국과 중계기에 적용을 완료했으며, 연간 약 1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1만톤은 2019년 서울 시내 약 76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채윤정 기자 echo@

위축됐던 경기회복 땀 ‘물가상승’ 우려

>> 1면 ‘포스트 코로나’서 계속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조의 고용세습을 원천 무효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취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구직장업 플랫폼을 활용해 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

급을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까지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원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는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며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

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며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게 되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이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해 극단의 경우 물가가 4.6%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정책적 대응도 함께 하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자동차, 로봇릭스 모빌리티 공개

>> 1면 ‘삼성·LG 등 K산업’서 계속

‘모빌리티 오브 씽스’ 개념 제시
삼성, 스타트업 위한 부스 마련

통합 솔루션으로 IoT와 프로액티브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체형 기회도 제공한다. LG전자는 더 진보한 올레드 TV를 비롯

한 TV 라인업도 대거 내놓을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도 투명하거나 휘어지는 OLED를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자랑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타버스에도 힘을 썼다. 삼성전자는 제페토와 함께 가상현실에서 신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마이 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제페토와 로블록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 플랫폼에 전시관을 마련한다. 특히 LG전자는 현장 부스에서도 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체험해볼 수 있는 ‘뷰포인트’를 준비했다.

◆ 주인공 노리는 현대차

자동차와 가전간 경계가 허물어지지 오래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CES에서 이에대한 입지를 더욱 넓혔다. 현대차는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는 주제로 자동차뿐 아니라 로봇릭스를 활용해 모빌리티를 더 다양화하는 방안을 처음 공개한다. 지난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에 더해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을 소개하며 하늘로 영역을 넓힌 상황, 이번에는 로봇을 이용해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봇을 활용해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모빌리티 오브 씽스(MoT)’ 개념도 제시한다.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플러그&드라이브(PhD)’ 모

듈을 통해 미래 공간과 이동성 개념을 새로 정의한다. 이를 이요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과 로봇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도 콘셉트카인 엠비전 판과 2GO와 함께 새로운 기술들을 준비했다. 통합 콕핏과 전동화, 램프 등 핵심 부품을 통해 앞선 전장 기술력을 전세계에 확인해줄 계획이다.

메타버스도 빼놓지 않았다. 현대차는 로봇릭스와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K-산업도 총출동

전자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올해 CES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함께 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기술력은 물론 ESG 경영 노력까지 자랑한다.

SK그룹도 SK(株),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가 함께 부스를 차린다. ‘동행’을 주제로 탄소 배출 감축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소개한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올해 처음 CES에 참가한다. 그린수소를 이용한 ‘해양수소 밸류체인’과 자율운항 기술 등 해양모빌리티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기선 사장이 직접 나선다.

두산그룹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부스를 차린다.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밥캣, 두산퓨얼셀, 두산산업차량, 두산로보틱스,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 등 계열사가 함께 하며, 수소 생태계에 핵심 역할을 할 ‘트라이젠’을 비롯한 수소 사업 계획, 로봇과 완전 전동식 중장비 등을 준비했다.

스타트업도 대거 태평양을 건넌다. 삼성전자가 C랩 과제 13개를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했고, 포스코도 공동 전시관에 직접 육성한 벤처 13개사와 함께 한다. /김재용 기자 juk@